

Let's Break the Mirror !

- 나의 몸,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

I. 나는 나에게 보여지기 이전에 언제나 남에게 보여질 뿐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있고 이러한 시선의 통제속에서 나의 욕망과는 무관한 또 다른 '나'가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내가 여성이라는 틀 속에 놓이면 그것은 변화불가능한 일상이 되어버린다.

II. '남성적 시선'이라는 말을 한다. 여성의 미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언제나 남성적인 기준에 의해 주조되어버리곤 한다. 이러한 시선들 속에서 자유로워지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내재되어버린 대상화시켜버리는 시선들.. 그 시선으로 나를 또 남을 바라보게된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의 욕망이고 어디까지가 '괴롭히는' 시선에 의한 것일까?

III. 나는 나를 한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다.... 거울에 항상 나를 비춰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나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되어버린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 때로는 나를 규정짓는 무거운 이론들과 시선들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 같다.

IV. 이제 나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322nd

Let's Break the Mirror!

- 더 이상 '비춰지고, 보여지는' 수동적인 것들을 거부해봅시다. 언제나 여성은 '거울 속에 비춰진 존재'로서만 살아가게 되고, 이러한 시선들을 내면화시켜 자신을 스스로 '떨리'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제하는 거울과 같은 통제의 시선에 벗어나봅시다!

■ 5. 19 월 6시 여학생휴게실 (학관 3층)

- 제1회 여성영화제 수상작 '한 거울 이야기' 를 본 후 '자신'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 '옷' 교환: 「꽃무늬 치마를 입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지금 그 치마는 장롱에 얹전히 있다.」

규정되는 자신의 이미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된 물건에 대해 설명해보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해보거나, 다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보자.

준비물 :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된 물건 (옷, 핀, 화장품....)

■ 5.20 화 6시 여학생 휴게실 (학관 3층)

- 자신의 현재 모습 그려보기/ 되고싶은 자신의 모습그려보기
- 자신의 몸에서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싫어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보기- 화장을 해보거나, 어제의 실패한 옷을 다시 시도해본다.
- 대안적 '나'에 대한 이야기

위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 이름 :

*. 간단한 참가 동기 :

*. 준비물을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